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83

JCCT 2019-2-11

장애대학생도우미의 도우미활동 경험과 역할인지에 관한 연구 : 포커스 인터뷰 적용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Role Recognition of Helper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cus Interview

최선경

Choi, sun-kyoung*

요약 본 연구는 부산시 S대학교에서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우미활동 수행 중에 무엇을 경험하며, 그 결과 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12명을 대상으로 3개의 그룹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1. 장애와 장애대학생도우미 역할의 이해 부족(준비되지 않은 채 수행하게 되는 장애도우미, 일회성 장애교육) 2.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의 어려움(감정적 일체감, 장애학생의 정서적 의존, 느껴지는 차별, 나의 이미지) 3. 도우미로서의 나의 역할(일반적인 역할, 나만의 역할) 4.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의 바램(선별의 체계화, 활동비 모니터링, 교육체계강화) 이라는 4개의 개념이 추출되었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학생도우미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장애대학생도우미, 활동경험, 역할인지,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제도, 포커스 인터뷰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to find out the experiences of the students who are help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 University in Busan and the perceptions of their role as assistants. 12 student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group focus interviews were conducted. Four improvement points (systematizing selection, monitoring expense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system) were derived for th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based on these four concepts, 10 categories were deduced. From the results,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roject to support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Helper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tivity experience, role awareness,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cus interview

1. 서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1]. 이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부터 교육기관에도 적용되게 되었고[2], 이로 인해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법률의 시행은 1995년 시행된 기존의 ‘특수교육대상 특별

*정회원,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제1저자)

접수일: 2019년 1월 20일, 수정완료일: 2019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X일

Received: October 12, 2018 / Revised: November 08, 2018

Accepted: December 09, 2018

*Corresponding Author: sun@silla.ac.kr

전형 제도' 시행 이래 가장 획기적인 장애인 고등교육의 장을 열게 하였다[3].

한편,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핵심은 '교육권'이기에 어떻게 하면 '교육권'을 강화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는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및 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과 기회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양성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4]. 일반인도우미와 전문도우미, 원격도우미로 나뉘는데, 대학 내에서는 주로 일반인도우미를 학생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주요지원활동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학생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4].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에게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의 형성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로써, 특히 학업적 적응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장애대학생이 대학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5],[6], 이 때문에 장애학생 도우미의 주된 역할이 수업과 강의실 등의 교내 이동에 집중되고 있다[7].

대학생활에서 장애학생 도우미가 하는 역할은 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과 교내 이동에 관여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정서적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7].

장애대학생과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 학업지원 등과 같은 학사관련 연구와[7-11] 정서적 우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적응상의 어려움[12-19]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장애대학생의 학습권과 교내이동권의 주요한 자원으로서의 장애대학생도우미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특례입학으로 인한 대학 내 장애인수의 증가와 그로 인한 도우미 수의 증가와 관련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 장애대학생을 보조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수는 516명이었으나 2017년 현재 763명으로 증가 되었다[5].

학교 내에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과 관련한 도움의 주체자는 도우미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들이 장애대학생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우미활동 수행 중에 무엇을 경험하며, 그 결과 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장애학생도우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생생하거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집단 면접 방법으로 유용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활동경험은 무엇인가?
2. 장애대학생 도우미가 인지하는 도우미의 역할은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장애대학생지원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도우미 입장에서 본 장애도우미 활동에 관한 연구와 [7],[20],[21]장애학생 당사자의 시각에서 본 도우미제도 활용의 경험의 연구[22]가 있다. 연구들은 장애활동도우미제도를 통한 긍정적 효과, 도우미역할, 도우미선발, 도우미 교육체계 등에 관해 논하고 있다.

[20]은 “대학생의 장애도우미 활동 전·후의 장애 인식과 수용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장애도우미 활동은 비 장애 대학생들에게 인지적으로 장애를 대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장애학생과의 질적으로 높은 접촉경험을 하면서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체험하면서 서로를 수용한다는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1]은 대학생들의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해 교수-학습활동 보조의 효용성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도우미 간의 긍정적 관계 확장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장애학생 도우미의 지원 범위와 활동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도우미학생들이 인식하는 역할의 범위는 장애학생과 같이 있어주는 상태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역할과 관련하여 [7]은 장애대학생이 요청하는 사항은 강의대필, 시험대필, 교과목 학습지원, 수업자료 타이핑과 같은 학습지원과 교내 이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도우미의 실질적 지원활동은 학습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활동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학생 도우미에 대한 사전교육과 과정 중 체계적인 교육제공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2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도우미활동을 통해 비장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장애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장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학생들 위주의 비장애인의 단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의 통합과 이해를 위한 교육적 측면의 함의가 재검토되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나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2]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장애 학생 당사자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경험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주목할 점은 대학입학이 결정된 장애학생에게 사전에 장애특성과 욕구를 조사하고 입학 후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전 욕구조사가 없이 정해진 도우미를 단순히 매칭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학입학 초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분석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도우미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미흡하며, 일부 대학에서 도우미 교육시간(100분)을 미준수 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도우미 학생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학별 사업관리·운영체계가 미흡하며, 일부 대학이 도우미 지원 상황·보고·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5].

보상체계와 관련해서 [21]은 근로장학금의 성격이던 보상체계가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도우미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으며 보상체계에 대한 준비를 시급한 과제로 보았다.

도우미 시작 동기에 있어서[21]은 장애학생의 직접적인 요청과 주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도우미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바로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을 통한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장애관련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대학생-도우미 간의 관계는 갈등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3]는 도우미 선발 및 배정이 완료된 후에 도우미 학생의 담당자는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습관, 건강문제, 습관, 유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고 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도우미 제도의 도우미역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도우미 입장과 시각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이유는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해 집중화된 자료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고, 그룹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24],[25].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의 S대학교 도우미 12명으로 도우미 경험은 1년 이상에서 2년이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1과 같다.

Table 1. Teacher

표 1. 연구참여자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Case	type of disability	duration of activity	age	Number of Meetings (Time Spent)
F1	1	Brain lesion 뇌병변	2years	22	50' hour 50 minutes = 2 hours
	2	Brain lesion 뇌병변	2years	22	
	3	Visual Aids	2years	23	
	4	Brain lesion 뇌병변	1years	22	
F2	5	Brain lesion 뇌병변	1years	21	50' hour 50 minutes = 2 hours
	6	Brain lesion 뇌병변	2years	22	
	7	Brain lesion 뇌병변	2years	22	
	8	Brain lesion 뇌병변	2years	22	
F3	9	Visual Aids	1years	22	50' hour 50 minutes = 2 hours
	10	Brain lesion 뇌병변	2years	22	
	11	Brain lesion 뇌병변	2years	21	
	12	뇌병변	2years	22	

2. 자료수집절차

1) 참여자 모집 선정

대학의 주무부처의 안내를 받아(1년 미만의 학생은 제외) 해당학생들에게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직접 만나 동의를 구했으며, 참여자에게 참여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2) 면담 질문지 구성과 진행계획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작성하였다. 개방코딩은 많은 자료에서 개념들을 식별해

내고 속성과 차원에 따라 현상을 명명하고 범주화 하는 체계적 분석방법으로 어떤 개념을 귀납적으로 이끌어내는 질적방법이다[26],[27]. 질문내용은 도우미 지원동기, 장애의 이해정도, 도우미 활동의 역할과 범위, 도우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질문을 구성하였고, 질문의 타당도를 위해, 과거 장애도우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 2명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 면담실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여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의 일정을 확인한 후, 서로간의 일정 조율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세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한 그룹 당 참여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약 5명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면담실시 전 참여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 참여를 선택할 수 있게하는 윤리적 고려를 수행하였다.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밝혔다.

질문의 방식은 [2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질문은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경험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하였다. 질문의 배열은 일반적인 질문에서 점점 구체적인 질문, 긍정적 질문에서 부정적 질문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시간은 대체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의 분석

자료는 2일 이내 타이핑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Strauss & Corbin(1990)의 개방코딩을 통해 의미있는 부분을 찾아 범주화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28]. 개방코딩은 면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개별적인 요소로 분리하고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자료에 반영된 현상들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함으로써 이해, 해석, 요약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방법이다[26]. 현장노트, 녹취록 등을 정리 분석하고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보내 누락된 내용이나 자료의 분석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타당성은 Guba와 Lincoln(1994)의 기준을 적용하여 확보하였다[28].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대학생도우미 경험에 대해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로 현재 도우미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녹음하고 필사한 후 최종분석 결과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확인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연구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 중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아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IV. 연구 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장애활동도우미의 인식을 나타내는 4 개의 개념이 추출되었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장애와 장애대학생도우미 역할의 이해 부족

1)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하게 되는 장애도우미 역할
도우미학생들은 친구의 권유, 선배의 권유, 장애당사자의 권유로 장애도우미에 대한 특별한 동기나 준비 없이 장애도우미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다.

**저는 동기가 몸이 불편한데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하여 하게 되었습니다(F1-1).*

**같이 다니기도 하나까..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서 하게 되었습니다(F1-2).*

**다른 학생이 도우미 하다가 그 친구가 도우미를 군대를 가서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F2-5).*

**저는 과방에서 놀다가 부 학회장 선배의 추천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고민을 하고 있다가 (F1-3)*

** 원래 OO동생이 일반 도우미로 하다가 2학기 때 같은 과 동기인 지원하다가 자기가 못할 것 같다며 부탁 했어요 (F2-6).*

**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이기도 하고요(F2-7).*

준비없이 시작된 도우미 역할은 무엇을 해야할지 혼란함을 가중시켰다. 장애의 이해와 개별적인 정보가 없이 시작한 도우미 역할은 스스로 터득해서 해야할 일을 찾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무엇을 도와주지 말아야 할지 적정선을 잘 몰랐습니다(F1-3).*

**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데 **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성호가 사용하는 물건 흰 지팡이나 점자기 등을 이해하고 (F3-9)*

** 뇌병변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는 상태에서 관찰을 했어요 어떤 것부터 도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F3-10).*

** 뇌병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그 친구를 봤을 때 일단 걸음걸이에서 뒤뚱뒤뚱하는 모습이 무슨 장애일까 생각했어요. 그냥 뭐부터 해야할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F1-6).*

**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한명한명 맞 추는게 아니고 전체 장애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어서 뇌병변도 있고 시각도 있고 학교에서 보면 장애가 다양한데 그걸 집중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어서... 하다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F3-10).*

2) 일회성 장애교육

도우미 학생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주로 사업의 목적과 장학금 수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장애교육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장애의 이해와 도우미 역할의 곤란함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 장애인에 대해 정확히 말을 안 하였습니다. 제가 집중을 안해서 인것도 있겠지만, 장애에 대해 그다지 집중해서 설명해주진 않았어요(F1-1).*

* 장애인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장학금을)어떻게 받는 지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oo장애인 복지관에서 와서 장애인 교육을 하긴 하였으나 기초적인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장학금은 다 궁금해 하나까...(F1-6)

* 뇌병변장애는 (장애인복지론) 수업시간에 들어서 알고 이었고, 실제로 봉사활동가서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본 것 빼고는 장애도우미 오리엔테이션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F3-10).

*교육을 시작할 때 한번, 그 후에 간담회가 있긴하는데 그 때는 이미 다 적응했을 때이고 (F1-9)

2.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의 어려움

1) 감정적 일체감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도우미활동의 어려움은 비교적 정서적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연애를 하고 싶은 장애대학생을 걱정하거나,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이성친구 이야기를 피하기도 하였다. 장애대학생의 입장에서 감정적인 일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 oo이가 남들하고 평범하게 연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이니깐 성향차이 일 수도 있는데 oo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oo이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깐 자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모습을 보면 내가 연애하는 것도 미안하고, 죄스럽고(F1-2).

* 제가 만약 여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그 여자가 장애가 있다면 처음에 만날 때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마냥 좋기는 안될 것 같고 그 여자도 마음이 이해가 가고, 친구가 여자를 만나야 저도 편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씩 고백을 했다가 차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 찾아가서 내가 대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F2-8)

장애대학생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속에서 마치 당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하였다.

* 종합강의동 화장실 밖에 못갔어요, 다른 곳은 높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좁아 oo가 스스로 바지 내리고 이게 안되는 공간이어서 그럴 때 너무 화가 나요. 학교에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 때마다 내가 oo이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애는 화를 안내고 있는데..(F3-10).

* 다시 건물 돌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횡단보도에 주차를 톱 해 놓고, 톱이 낮아야 전동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데 사이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고 썩썩거리고, 전화 안받으면 다시 뺑 돌아가고 그럴 때, 제가 oo가 된 것 같고 그게 힘들어요(F1-9).

* 지금 oo 수업이 강의실1239에 들어가는 수업인데 맨 앞 자리에 앉아야(휠체어) 자리가 확보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정면을 보고 수업을 못들어요. 휠체어를 들어서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면 화가나고 속상한데 말은 못 하겠고요(F1-4).

이러한 감정적 일체감은 다른 사람이 장애대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시선 그리고 이중적 태도에서 느끼고 있었다.

*이동이 좀 불편해서 편의점 진열된 것을 한번 쳐서 넘어뜨렸는데 알바가 와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 저한테는 뭐라 안 하냐고 싸우다가 oo이가 말려서 겨우...(F1-1).

* oo가 사람얘기를 말하면서 다니는 애구나 이런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들으면 화도 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oo이는 좀 정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생략) 저는 왜 그 친구가 그랬는지 이해가 가서 화가 났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왜 그런말을 했는지... 왜 이려고 다니냐고 (속상해서) 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F2-5).

* 중 고등학생 때 왕 따를 당한 것을 얘기해서, 옆에 있으면 말해줄 것 같고 싸울 것 같아요. 왜 그런일을 이 친구가 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까지도 상처로 안고 있는 게...(F2-7).

또한, 부당한 상황을 오히려 익숙해 하는 장애대학생

을 지켜보면서, 그 모습이 더 화나고 잔하게 되는 감정적 일치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 OO이의 경우 너무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고 가서 깔보는 말들을 많이 해서 대놓고 왕 따도 시키고 그것을 보면서 (상준이 본인이) 화가 났을 텐데 (오히려)웃음으로 받아들이니 제가 화가 나고 슬펐어요. 그 상태를 말하면 안되고 참아야 하니깐.

* OO가 사소한 거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는게 익숙하게 느껴져요. 익숙해 보여요. 그럴 때 기분이 잔해요...가라앉게 되요(생략). 그런점이 힘들어요(F3-10).

* 니가 불편한건 (다른 사람들에게)말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OO이는 조금 일을 크게 안키웠음 좋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이면 꼭 필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내가 너무 오버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도우미를 하면서 힘들죠(F1-4).

2) 정서적 의존

장애대학생의 대인관계가 도우미 학생에게 집중될 때, 정서적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도우미학생들은 장애학생이 도우미 학생 외에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저 말고도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친구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되면 안에 속마음도 말하고 장애인도우미도 편하고 다른 부분에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나한테만 의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면.. (F3-11).

* 저한테 올면서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다고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묵묵하게 듣고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제게 많이 의지를 하니깐.. 제가 동정심일 수도 있고(F1-1).

* 저도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신경을 못써주고 OO이랑 만나는 일이 작아졌었는데 OO이는 진짜 친구가 필요해요(F2-5).

*도우미한테 돌이 계속 붙어있다보니 돌 말고 관계가 없어요. 도우미랑 돌이만 다니면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 기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동아리방에 친구들이 있고요(F3-10).

3) 장애, 느껴지는 차별

도우미 학생들은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시간동안 장애로 인한 차별을 몸소 느낀다고 하였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접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느끼기도 하였고, 조별과제 수행 시 배제되거나, 장애학생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등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 조별과제 하면서 이동하는 동안 지켜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아요. 그럴 때 “아, 애는 이런걸 매일 느끼겠구나.”(F3-12).

* 택시기사가 대놓고 장애에 대해 OO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생략)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애길 듣고 제 친구한테 그런 애길 하니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F2-6).

* 저는 다른 학교생활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가장 안타깝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지의 정도는 이해를 해도 교수님의 대우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질문도 그 학생만 빼고 (출석부를 보고 지목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F1-3).

* 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저보고 왜 저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냐는 식으로 말이 많이들 하더라고요. 재 뭐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보면 또 그 사람이 OO이한테 가면 가식적이고 또 저는 이런 것을 OO이한테 말하지 못할 노릇이고(F3-9).

* 전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동기랑 다니다 보니 듣지는 못하는데 강의실 뒤쪽에서 막 안좋은 얘기 하는 것을...(생략)... OO이가 들었으면 차별이라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F1-1).

* OO이가 1학년때 겪었었는데 OO이가 수업진행 중 화

장실을 갔다 오기 위해 나갔었는데 교수님께서 꾸중?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 강의실의 경우 (계단이 많아)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OO이도 조심조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때 이걸 정말 차별이다. 다른 애들도 항의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F2-5).

* 조별과제를 같이 했는데 같이 특방이 있으면 이 친구를 배제해놓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5명에서 같이하는 건데 4명에서 얘기하는 거죠(F2-6).

* 사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학교내 에서 크게 없어요. 근데 앞에서는 없는데, 뒤에서 있나고 해야 하나? 아니면 생각해 보면 차별인가? 그런건 있어요. 예를 들면, 조별과제할 때 안해도 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과제를 한다거나, 아무튼 뭐라 말하기 애매한데... 설명하긴 힘든데... 그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F3-11).

4) 나의 이미지

도우미 학생들은 외부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민감함을 표현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는 도우미 역할 역시 어떻게 비춰지는 지에 관해서도 민감하였다. 특별한 사람, 바쁜 사람, 다가가기 힘든 사람, 보호자와 같은 용어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저는 도우미라고 다 해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것만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데, 선배들이 불러서 뭐라고 할 때, “아 내가 하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구나” 생각해서 억울했어요(F1-3).

* OO의 변호인? 보호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든지 OO에게 말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OO가 있어도 의견을 저한테 물어요(F2-5).

* 공강 시간때도 뭐든지 다해줘야 하는 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왠지 제 역할을 게을리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문득문득 신경이 쓰여요. OO가 제 옆에 없으면 다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F2-7).

* 특별한 사람, 장애인 도우미한테 다가가기 힘들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F1-3).

* 나쁘게 말하면 돈을 쉽게 버는? 잘 모르고 보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F2-6).

* ...(생략) 둘만 다니는 애, 바쁘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F3-10).

3. 도우미로서의 나의 역할

1) 일반적인 역할

도우미학생들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일반적인 역할과 자신만의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역할이란 학습권, 학내 이동권, 화장실 이용·식사 시 보조 등과 같은 항목이었다. 이는 장애학생도우미지원 제도에서 제시되는 항목과 같은 맥락이었다.

* 평상시에 도움을 주는 만약 수업 필기 못했으면 필기 보여주고, 공강 시간 같이 밥먹을 때 주문하고 갈다주는 거 같다오는거 만약에 컵라면 조리 하면 주고(F1-4).

* 그냥 간단한 것은 수업할 때 돕는 것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F3-11).

* 도우미라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다 해줄 수 있고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죠(F2-7).

* 이동할 때 그리고 밥 같이 먹는 거 왜냐면 수행적인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써요(F3-12).

* 이동할 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1~2학년 때는 수술하기 전이다 보니 열 발자국 걸으면 휘청 이런 식이 많다 보니 이동보조 식사보조가 대부분 일 것 같습니다(F2-6).

2) 나만의 역할

도우미학생들이 언급하는 도우미의 역할은 일반적인 역할 이외에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분류되었다.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고 일정 부분은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거나 동정심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할 일을 최소화 한다거나, 도움을 주되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등의 내용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의도적 행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 저는 역지로 도와주는 것이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와주는게 더 편하고 쉬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혼자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생략)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F2-7).

* 별것은 아닌데 과도하게 도와주려는 것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장애를 인식하니깐 시선이 안 좋은 동정심 그런 것일 수 있고 무엇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러면서 저 친구를 도와주려는 게 자발적인 것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F1-2).

* 도움을 주되 낙인감을 주지 않는 것에 신경 써주고 좋은 점을 얘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어필되도록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게...(F2-8)

* (시각장애이기에)혼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사교성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하고 혼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F1-3).

또한 친구가 되어주고, 상황을 대변해주고, 다른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정서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장애학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장애학생도우미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친구가 되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우들과 소통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인식보다는 이런 인식이 낫다고 전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F3-11).

* OO이랑 있을 때도 저를 다른 사람이 가끔 찾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F2-5).

* 외롭지 않게 장난도 치고, 장애 그런거 생각 안하고 똑같이 대하는거요(F3-10).

*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도우미는 정서적인 부분을 케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걸 장애학생이 편안하게 느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고요(F3-11).

* 정서적 역할하고 물리적 역할 하고 다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안 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괜히 더 잘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F1-1).

* OO이 그냥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도를 잘 알아듣는것도 중요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부분이 큼니다(F2-7).

*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신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으니 같이 있으면서 지지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장난도 치고 하면 심신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F2-8).

* OO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사교적으로 하는 거요.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F1-4).

* OO가 어느수업에 가더라도 친구들이 있게 해 주는 거요. 저 하고만 말하는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하는거요(F3-10).

4.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제도의 바람

1) 장애학생도우미선별과정의 체계화

도우미 학생들은 도우미선별과정이 체계화 되면 장애학생 당사자가 제도활용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초기부터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같은 학년, 같은 학과 내에서의 단체카톡방, 밴드 등의 공지를 통해 구인정보를 공유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매칭의 주요 연결망으로 주무부처의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선별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성

김사도 하니깐 제대로 좀 보고.. 보고서 쓸 때는 정확히 쓸 수 있는...(F2-6).

* 장애인 하고 장애인 도우미 (매칭) 하는 것이 선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이 부분을 학생지원처에서 중간에 해주는 것도 공식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끼리 아름아름 알아서 하는 것은 친구관계에서 시작해서 애매해 질 수도 있고요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F3-11).

* 우선은 도우미랑 장애학생이랑 학년과 시간표가 같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1학년 입학 했을 때부터 장애학생이 입학한 과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카톡이나 밴드에 올리면 정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F3-9).

* 한번 하면 계속해야 하는 부담감은 장애학생이나 도우미 학생이나 둘다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싫어도 계속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 언제든지 계약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서로서로가 싸인을 해서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 만났을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저 말고도 몇 명이 지원을 했고, 저 다음에는 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가 증재해서 목록으로 나와도 좋을 듯 해요(F3-10).

* 처음에 같은학과 같은학년에서 도우미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정보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도우미 지원을 (서로)결정해서 오리엔테이션에 오는게 아니라 우선 전체 학년이나 해당 학년에 공지하고 접수를 받는게... 도우미 활동에 대한 각오가 처음부터 있는 사람들 위주로요(F2-9).

2) 활동비 지속적 모니터링

도우미 학생들은 한달에 한번 쓰는 보고서를 통해 활동비를 책정하게 되는 현실에서, 부득이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활동비를 부풀려서 작성하는 사례를 들면서 활동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수학생들의 편법으로 사기가 저하되기도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 보고서 쓸 때 불가피한 사항을 기재하면 그것도 시수로 인정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총 64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활동시간)이렇게 되었다.”라고 쓰면 거의 조작이라고 봅니다(F1-2).

* 보고서 횟수를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쓰니깐 (생략), 한 주에 한 번 한다든지 격주로 쓴다든지 이것도 한 줄 평이 있는데 일주일 해도 일곱 줄이니깐... 쓰기 쉬어요(F2-6).

* 도우미활동을... 요즘은 전에 보다 많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뭘 몇 시간 하고...그게 약간 애매해요. 요즘은 기준이 잡혀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지만(F2-5).

* 청각장애인데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우미 친구 도우미 활동비가 나오니까 나누는? 그런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건 진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F3-10).

* 2학년때 뇌병변 장애학생은 1학년때는 도우미 쓰고, 2학년 혼자 다녀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하고 아니면 의존성을 주는 제도 인 듯 합니다. 이게 활동비와 관계가 되니까(F3-11).

* 혼자 잘 해가는 사람들도 많고, 독립성이 엄청 강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 선배가 도우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잘 다닙니다, 보면 항상 도우미 는 없어요, 도우미는 신청한 것 같은데...그럼 활동비는 누가(F3-9).

3) 장애학생도우미 교육체계 강화

면담 중간 중간 도우미학생들은 도우미활동 초반에 장애이해의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실제로 도우미활동을 수행하면서 장애인식 및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초기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었다.

* 처음에 도우미입장에서는 장애학생에게 뭐가 어려운지 선뜻 물어보기가 힘들니깐 장애학생도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저게 말을 못하니깐 그게 도우미 교육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었어요(F2-6).

* 기본적으로 교육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F1-3).

* 장애의 특성이나 뭐..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시각장애면 시각장애, 지체면 지체 유형별로 조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면 훨씬 나을 듯해요. 청각장애, 뇌병변 장애 나누어서 자세해요. 지금은 그냥 장애를 총망라해서 설명하는데, 유형을 나눠서 들어가면 실제로 도움이 될 듯해요. (F2-5).

또한, 장애학생도우미 교육은 도우미 학생에게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당사자인 장애학생들도 어떠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활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인 당사자가 도우미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당당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 장애학우들을 뽑아서 일정을 모아서 불편한 점이 없다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애학생들에게 더욱 도우미제도 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F3-11).

* 제가 알기로는 장애학우와 장애인 도우미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도우미를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자신의 여권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런걸 보면 장애학생에게도 도우미 활용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F3-12).

교육체계 강화의 일환으로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강화, 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을 규칙으로 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만약 결석 시에는 벌점 등의 규정을 두어, 장애 관련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 지금도 오리엔테이션 해도 간담회 해도 안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장애학생이던 도우미 학생들이던 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안지키고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F1-4).

* 중간에 간담회를 하지만 오질 않아요. 장애학생지원센터

터에서 벌점제 만들어서 교육 안 받고 간담회 참석 안하면 기록되는... 결석하는 학생과 도우미에게 벌점을 주는 거요(F3-10).

* 간담회는 점점 갈수록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처럼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들이 자주 만날 수 있게, (도우미 시작하는)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강조 하고...(F1-3).

* 한번으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도우미) 시작 전에 일정한 장애교육 코스가 있어야...(F3-9).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우미활동 수행 중에 무엇을 경험하며, 그 결과 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12명을 대상으로 3개의 그룹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4개의 개념이 추출되었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은 도우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장애도우미 역할을 시작하게 되어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대부분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장애대학생도우미 오리엔테이션 때 시행하는 장애교육의 부족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학입학 초기에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23]의 연구와,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의 장애교육이 단순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20]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5]역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평가하면서 일부 대학에서 도우미 교육시간 100분을 미준수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도우미 지원 상황·보고·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한바 있다.

또한, 장애대학생도우미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 친구,

장애당사자의 즉각적인 권유에 응하거나 장학금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도우미활동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3]은 장애학생의 사전교육에 의해 도우미 매칭을 실시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권유와 결정 보다는, 장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수반한 적극적 동기가 있는 학생이 매칭 되도록 조정해 주는 중간거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장애대학생과의 감정적 일체감, 장애대학생의 정서적 의존, 장애학생을 향한 외부의 차별, 외부로부터 느껴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활동의 어려움은 주로 정서적 측면에서 강하게 표현되었다. 감정적 일체감은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나 고민을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우미 학생들은 장애로 인한 일상적 어려움을 두고, 마치 당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하였다. 앞서 [21]은 장애대학생과 도우미 간의 관계는 갈등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본 연구도 갈등관계는 많지 않았으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어려움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감정적 일체감은 정서적 의존과도 관련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우미 학생들은 장애학생의 대인관계가 자신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강하게 의지하고 있을 때 도우미 활동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정서적 부담감을 고려한 장애이해의 교육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한 감정적 일체감, 장애대학생의 정서적 의존으로 인한 활동상의 어려움은 사실상 장애이해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본격적인 활동 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00시간의 의무교육 내용은 주로 포괄적인 장애를 다루고 있고 장학금 수여 내용이 주요 관심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은 장애의 유형이나 활동 제약점에 관련한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우미 학생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몸소 느끼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직접적인 차별 보다는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

러나 장애학생 당사자는 오히려 이 부분에 익숙해 보였다는 의미는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차별을 구별하고, 차별에 대해 당당히 논할 수 있는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모두에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규정과 내용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도우미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에 관해 민감해 하였다. 특히, 장애대학생을 대하는 자신의 행동하나 하나가 어떻게 전달되고 비춰지는 지에 대해 민감하였다. 도우미 학생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특별한 사람, 바쁜 사람, 다가가기 힘든 사람, 보호자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이 역시 도우미활동의 역할 모호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역할에 대한 책임과 범위가 분명하다면 그 역할의 규정 안에서 충실할 수 있지만 모호하다면 도우미 학생 스스로도 일관성 있게 도우미 활동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한 활동상의 곤란함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간담회의 무게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은 일반적인 역할과 자신만의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역할이란 [5]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할을 의미하였으며, 자신만의 역할이란 주로 정서적 지지를 의미하는 역할로 이해되었다. 일반적 역할은 학습지원과 편의지원 사항이었다. 주목할 점은 일반적 역할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았으나, 자신만의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찾기 까지 역할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역할 범위에 들어가 있는 이동지원에 있어서 보행이 가능한 경우, 장애학생과 상의하여 최소한의 것만 보조해 주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장애학생 입장에서 동의된 배려임을 말하고 있었다. 주로 도움을 주되 낙인감을 주지 않는 상태를 의식하고 있었으며 자칫 동정심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현실을 언급한 [8]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장애학생 도우미가 하는 역할은 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과

교내 이동에 관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의 결과라고 이해되었다.

넷째,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장애학생도우미 선별과정의 체계화, 활동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애학생도우미의 교육체계 강화를 언급하였다. 장애학생도우미 선별과정의 경우, 장애학생이 개별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선별심사를 통해 매칭해야 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1]은 장애학생의 직접적인 요청과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 도우미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도우미 선발 및 배정이 완료된 후에도 학교는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습관, 건강문제, 습관, 유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의 기회를 마련 [24]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도우미학생들은 활동비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앞서, [21]은 근로장학금의 성격을 띤 보상체계가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도우미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보상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비 액수에 관해 도우미학생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부 학생들의 편법이 사기를 도우미 학생 간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학교의 주무부처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제시하는 주된 도우미 활동은 학습권과 이동권의 보조이지만, 이러한 수행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밀착된 관계로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곧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르는 도우미활동의 어려운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우미 역할에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역할의 모호함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관점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우미학생 선별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매칭을 하더라도 일정기간과 시간에 장애관련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수여되는 강화된 절차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도우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학기의 수강신청을 되도록 똑같이 짜야 하는데, 이로 인해 도우미학생을 개별적으로 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학교 측에서는 새 학기 시작 전,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사업의 요지와 내용, 그리고 장애학생도우미의 구인·구직 정보 등을 공지·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교육의 강화로서, 각 학교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구성보다는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사업 자체의 매뉴얼화 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포함될 내용으로는 장애도우미 학생을 대상으로 담당하게 될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장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가능한 수행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공식화된 역할의 범위를 제공하는 등의 보다 적용 가능한 교육의 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당사자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 차원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장애·비 장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대학생도우미 활동 수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서의 근로 장학금의 수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애대학생이 겪는 애로사항에 활동비와 관련한 곤란함이 있는지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는 장애학생 신문고를 만들어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pecial Education Law for Disabled Persons. (Enforcement 2013.12.30.), (Amended by Law 12127, 2013, 12.30).
- [2]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Rights, etc(2015.1.29.) (Law12365, 2014.1.28.)

- [3] S.K. Choi,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the Meaning of Visually-impaired Undergraduate Freshmen's University Entrance and their School Life Experiences : At a crossroads before taking a leave of absenc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8, No.8, pp. 36-50, 2018.
- [4] National Institut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Welfare University, "Detailed Plan for the Support Program for Disabled Students in 2018," Ministry of Education, 2018.
- [5] Ministry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Tea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ic Plan for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2018", 2018.
- [6] M.S.Suk, D.W.Kang, "A Study on the disable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daptation of college lif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6, No.4, pp.171-194, 2005
- [7] Y. J. Park, S. H. Jeong, "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to Utilize the Peer Support System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Maximize their Academic Adjustm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7, No. 1, pp. 173-193, 2018.
- [8] M. S. Kim, J. H. Park, "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for the Learning- Support systems of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6, No.1, pp.25-41, 2010.
- [9] S. A. Kim, C. W. Park, H. G. Lee, " Characteristics of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need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31, No. 4, pp. 335-357, 2003.
- [10] Y. J. Oh, S. M. Lee, " A Stud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9, No. 2, 45-66, 2013.
- [11] J. K. Lee, S. W. Ahe, "The Actual Condition and Gender Awareness on College Life · Course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5, No. 2, pp. 259-284.
- [12] M. S. Kim, "The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on University life : over the right to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8, No.4, pp. 97-117, 2014.
- [14] K.H. Kim, "College Adjustment of Freshmen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Admitted through Special Admission in 4 year Colleg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6, No 3, pp. 187-202, 2015.
- [15] D. I. Kim, H. J. Go, S. R. Jung, J. S. Kim, "Resilient Integration Process of College tudents with disabilitis."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Vol. 51, No. 4, pp. 295-318, 2012.
- [16] H. G. Jo, "A Study on College Life Adaptation Proces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32, No. 3, pp. 1-33, 2016.
- [17] H. Y. Kwon, H. M. Kim, "Effects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self- concept, depression and anxiety on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 7, No.2, pp.43-56, 2004.
- [18] J. Y. Choi, "A Phoomenological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4, pp. 2571-2589, 2009.
- [19] J. N. Lee, " A Qualitative Case Study of School Lif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K University in chungbuk." *Studies in Humanities and 6 Social Sciences*, Vol. 50, pp. 5-23, 2016.
- [20] M, J, Cheong, H, I, Jo, "Before and After The Challenged Acceptance Attitude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hallenged Students Support Program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4, pp.209-244, 2016.
- [21] M, S, Kim, "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Perception of Assista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10, No.1, pp. 187-207, 2011.
- [22] S. J. Yeo, J. H. Jo, A. S. Park, "A Qualitative Study of User Experience in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ssostant Support Program."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Vol, 10, No. 3, pp. 125-151, 2016.
- [23] H. K. Kang, J. H. Kim, K. S. Lee, " Analysis on Perception on Disability, Experiences and Need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tudent with Disabilities Support Program in Colleg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6, No.2, pp. 265-294.,2011.
- [24] Morgan, D. I. "The Focus Group Guidebook"

- Focus Group Kit 1. SAGE Publication: CA, 1998.
- [25] H. I. Kwon, G. S. Yoon, S. R. Kim, “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uicide Crisis Interventions : Counselor Focus Group Interview centered“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2, No.2,pp. 159-175, 2015.
- [26] S. G. Kim. K.L. SIN, Understanding grounded theory.Seoul:Hanul Academy, 1996
- [27] S. B. Kwon, Y, H. Yom, E.k.Kwon, K. Eun,Y.Y.Lee,“The Empowerment Experience of Hospital Nurses Using Focus Group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 4, pp. 445-454, 2007.
- [28]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Techniques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29]Guba EG, Lincoln YS,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K Denzin, Y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1994.